

200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모성상(母性像) 고찰
—〈마더〉와 〈피에타〉를 중심으로

이성준*

1. 들어가면서
2. 아버지의 부재, '외동' 콤플렉스와 모성의 변화
3. 아들에 대한 집착, 부정적인 아니무스의 발현 : 〈마더〉
4. 양면성을 가진 '위대한 어머니' : 〈피에타〉
5. 나가면서

국문요약

본고는 2000년대 '어머니 담론'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영화 다섯 편(〈올가미〉, 〈오로라 공주〉, 〈세븐 데이즈〉, 〈마더〉, 〈피에타〉)을 중심으로, 특히 〈마더〉와 〈피에타〉에 나타나는 어머니상의 변화 양상과 그 이유를 살펴본다.

2000년대 '어머니 영화'에는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의 부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면서 현대 산업사회의 양상을 반영한 것이지만, 어머니에게 자식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여 아버지의 역할까지 대행하게 한다. 이런 상황은 어머니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또한 아버지의 부재는 법과 질서에 대한 경시 풍조를 강화하는데, 그런 변화된 어머니상을 반영한 것이 이 다섯 편의 영화라 할 수 있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거기에는 '외동' 콤플렉스까지 작동하여 어머니는 부정적 아니무스의 발현이 되기도 한다.

〈마더〉가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다.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어머니의 집착은 결국 비극적인 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마더〉에는 근친상간적 요소까지 도사리고 있어, 마더는 결국 '마녀/마귀' 내지는 '머더(murder, 살인)'의 다른 이름이 된다. 이런 점에서 〈마더〉는 2000년대 '어머니 영화'가 추구해온 변화된 어머니상을 표출하는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자리에 서 있는 영화라 하겠다.

〈피에타〉는 어머니의 다면적 속성을 드러낸다. 아들의 복수를 위해 악마를 파괴하는 부정적 어머니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여느 '어머니 영화'와 동일선상에 있다. 하지만 자애롭고 긍정적인 어머니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다른 위상을 가진다. 또한 '어머니 담론'을 통해 인간 구원 문제를 깊이 탐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영화라 하겠다. (주제어 : 〈마더〉, 〈피에타〉, '어머니 영화', 모성, 모성상의 변화, 아버지의 부재, 다면성, 아니무스, 제의, 희생양, 인간 구원)

1. 들어가면서

2000년대 한국영화는 '반성적 성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우리의 정신문화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영화가 대거 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너진 공권력과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불신 태도(〈추격자〉, 〈부러진 화살〉, 〈도가니〉, 〈용서란 없다〉), 드러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추악함 폭로(〈도가니〉, 〈공모자들〉, 〈남쪽으로 튀어〉), 어머니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어머니 담론'(〈올가미〉,

〈오로라 공주〉, 〈세븐 데이즈〉, 〈마더〉, 〈피에타〉 등은 우리 사회의 얼룩과 상처,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성장 일변도의 7·8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는 얼마간 안정되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피폐해진 현재 상황을 반영한 이 ‘반성의 자리’는 슬프고 아프지만 용승하기도 하다.

이 중에서 ‘어머니 영화’¹⁾는 “유교적 규범과 맹목적 가족주의, 그리고 ‘비합리적 근대’가 부추긴 주정적 취향이 집약된, 무정형”²⁾의 어머니가 아닌 다면적인 어머니를 그려냄으로써 어머니의 변모상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이고 고착화·이념화되어 있는 어머니가 아닌,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모성과 어머니상³⁾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2000년대 스릴러 영화⁴⁾에는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표출되는데, “영화를 비롯해 매일 방영되는 TV드라마에서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온 ‘모성 코드’가 스릴러 영화 속에서 의심받기 시

1) ‘어머니 영화란 ‘어머니 담론’ 중 어머니를 핵심모티프로 한 영화를 지칭한다. 엄밀한 의미로는 ‘어머니 담론 영화란 용어가 적절하겠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어머니 영화라 약칭하기로 하겠다.

2)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 장르의 모든 것 3 : 추리물』, 이론과 실천, 2011, 68쪽.

3) 허디(세라 블래퍼 허디, 황희선 역, 『어머니의 탄생 : 모성, 여성, 그리고 가족의 기원과 진화』, 사이언스북스, 2010.)와 도킨스(리처드 도킨스, 홍영남·이상임 역,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10.)는 모성 또는 모성의 변화, 그리고 진화도 환경에 적응을 위한 변화라고 강조한다. 진화론적 입장이라는 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물리적·심리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바르부(제베데이 바르부, 임철규 역, 『역사심리학』, 창작과비평사, 1983.)도 인간의 심리는 역사·사회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4) 추리서사가 나타나는 서사물을 통틀어 ‘추리물’이라고 칭한다. …… 영화, 드라마, 만화의 경우에는 ‘추리’라는 말보다 ‘스릴러’라는 용어가 더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러나 스릴러는 탐정물, 범죄물 등과 함께 추리물의 하위유형이다.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앞의 책, 19쪽. 참조.

작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⁵⁾이라 하겠다. 대중문화 자체가 민감하고 예민하여 반응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 ‘어머니 영화’ 중 〈올가미〉, 〈세븐 데이즈〉, 〈오로라 공주〉, 〈마더〉, 〈피에타〉에 나타나는 어머니상—그 중에서도 특히 〈마더〉와 〈피에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된 어머니상에는 어머니를 변할 수밖에 없게 하는 현실 상황이 억압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기제들을 살펴 어머니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마더〉와 〈피에타〉에 나타나는 모성상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어머니 영화’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는 한편, 그 의미를 밝히기로 하겠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아이의 거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유전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어머니가 변화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머니와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아버지의 부재, ‘외동’ 콤플렉스와 모성의 변화

2000년대 ‘어머니 영화’에는 아버지, 아버지란 존재가 없다. 〈오로라 공주〉에는 형사인 아버지가 있지만, 그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일 뿐이다. 딸 생일날(동시에 딸이 유괴당해 살해당하는 날)에도 비상 근무하느라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듯 ‘어머니 영화’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5) 위의 책, 68~69쪽.

지워져 있는데, 아버지의 부재 내지는 증발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반영한 한 것이라 하겠다. 아버지가 없거나, 설혹 존재하고 있다 해도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표상한다 하겠다.

아버지 부재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버지 위치 변화다.

산업사회 체제하에서 아버지는 가족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산업사회 자체가 가정이나 가족보다 직장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⁶⁾ 특히 200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 구제금융 체제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 생존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경쟁의 가속화는 직장인이면서 가장인 아버지를 더욱 몰아매게 되고, 그럴수록 아버지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가족과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신적 여유를 갖기 어려워진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와 부양에만 관심을 가질 뿐, 자녀 양육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또는 아버지란 존재는 지워진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실재적으로는 아버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적 부재 상태이거나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혼의 급증도 아버지의 부재를 부추겼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은 대부분 어머니 쪽이 담당한다.⁷⁾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경우

6) 노동시장의 불안, 노사 갈등 심화, 노동시간의 증가는 노동자 생활태도 및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때 노동자들의 삶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고, 불평등과 차별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가정과 가족이 차순으로 밀리게 된다. 비판사회학회 엮음, 『산업사회의 이해: 노동세계의 탐구』, 한울아카데미, 2012.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7) 박정기·김연, 「이혼 후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17-22, 한국가족법학회,

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을 맡는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가부장적 의식이 잔존하고 있어 아버지가 가사 노동이나 자녀의 양육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식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⁸⁾ 이런 경우 아버지는 곁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재하는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가 비록 경제적 지원을 한다 해도 아버지의 부재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이유로 아버지의 부재는 상징적으로나 실재적으로나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징적으로든 실재적으로든 아버지 부재 내지는 증발은 어머니와 자녀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⁹⁾ 아버지의 부재는 <올가미>에서처럼 악마적인 어머니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오로라 공주>나 <세븐 데이즈>에서처럼 딸이 유괴 납치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마더>에서처럼 어머니를 ‘마녀(마귀)’로 변화시켜 ‘살인’¹⁰⁾을 저지르게 하

2003, 41쪽. 이 통계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양육권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통계에 의하면, 이혼 후 3 : 2 정도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을 더 많이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안수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9) 스티븐 B. 폴터, 송종용 역,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7, 222~249쪽. 참조. 폴터는 “부재형 아버지는 자녀가 이해하거나 해결하기 힘든 ‘감정의 패러독스’를 자녀에게 남겨준다. 부모를 상실하는데 따르는 자연스런 일차적인 심리적 반응은 공포와 고통이다. 이어서 자신의 상처와 공허함을 은폐하기 위한 분노가 따른다.”(230쪽)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폭력배 집단의 공통분모가 아버지의 부재”(226쪽)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10) “마더는 가장 친숙하지만 그러나 낯설기 짝이 없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거리감을 친숙한 듯 낯선 외래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마더’는 ‘마녀’라는 말과 발음이나 어감 상 매우 유사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더욱 낯설게 만든다. 그리고 마더(mother)는 머더(murder, 살인)라는 말과도 연결되어 마녀 또는 여성괴물과 연관된

기도 한다.¹¹⁾ 또한 아버지는 법과 질서의 상징적 존재이기에 가족들에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법과 질서의 상징인 아버지의 부재는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마저 변화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어머니 영화’에서 어머니들이 법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부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머니 영화’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이 모두 소거된다.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 형제나 어머니 형제 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마저 없다. 이들은 외화면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어머니와 외동아들(딸)만이 존재한다. 어머니와 그 아들(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고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부재로 친가와 외가의 왕래가 끊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외가와도 일정한 거리감이 형성될 수 있다. 더군다나 핵가족 시대요, 맞벌이 시대이다 보니 일가와 외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거기에서 서구적인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의 고착화로 소외 내지는 고립화 된다. 이렇게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성이 끊어짐으로써 모든 관심과 초점이 외동아들(딸)에게 맞춰질 수 있다.

〈오로라 공주〉에는 있으나마나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세븐 데이즈〉에는 유지연 변호사의 학교 동창인 형사가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도 결국 가족은 아니다. 대행 아버지¹²⁾라 할 수 있으나 대행 아버지는

의미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도 한다.” 전문희, 『〈마더〉 : 모성의 괴기함 또는 신성함』, 『한국인문학연구』 31, 한중인문학회, 2010, 273쪽.

11)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어머니와 자식의 시련은 세라 블래퍼 허디(황희선 역, 앞의 책.)가 밝히고자 하는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와는 달리 인간 사회에는 법과 질서가 존재한다. 그 법과 질서가 바로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이름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재는 법과 질서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12) 대행 부모(alloparent)는 부모를 대신해서 새끼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도움꾼(helper)을 말한다(세라 블래퍼 허디, 앞의 책, 160~163·266~270·429~435쪽. 참조.). 따

역할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와 외동자녀는 외부의 적에게 표적이 될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¹³⁾ 따라서 어머니에게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식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어머니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어머니는 외부적 위협과 도전에 적극적인 대항을 하고 외부적 폭력에 대해 복수를 감행하기도 한다. <마더>의 마더(혜자)처럼 직접 탐정이 되어 아들의 무죄 증거를 찾는가 하면, 정신박약아를 희생양으로 삼아 아들의 죄를 감춘다. 또한, 아들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까지 서슴없이 자행한다. <오로라 공주>에서는 딸의 유괴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 사람들을 살해하는 한편, 정신병원에 숨어있는 유괴 살인범을 찾아내어 살해한다. <세븐 데이즈>에서는 잔인하게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살해범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인 화형으로 직접 처단하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의 딸을 유괴하기도 한다. 이들은 분명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부정적 아니무스(animus)의 발현¹⁴⁾이기도 하다.

라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새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진다. 스테판 B. 폴터(송종용 역, 앞의 책, 34쪽.)는 ‘아버지 요인(father factor)’를 지적하면서 아버지는 “단지 생물학적인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 예를 들면 양아버지나, 나이 차이가 많은 큰형과 같이 아버지 상이 되었던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대항 아버지, 심리적인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그들의 영향을 중시하고 있다.

13) 세라 블래퍼 허디의 위의 책은 이런 성향을 다양한 동물종과 인간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모자이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어머니란 중핵(핵심모티프)을 설정하고 그와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다양한 존재와 상황, 그리고 적응과 변화·진화상을 추적하고 있다.

14) 옴은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성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 속에 존재하는 남성상을 아니무스(animus)라 했고 남성 속에 존재하는 여성상을 아니마(anima)라 했

그녀들은 자기 자식에게는 어머니일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로 보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피에타>는 여타의 '어머니 영화'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선(최민수 분)은 자신의 아들이 소중하듯, 남의 아들(비록 악마의 화신이지만)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여 '어머니 영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더>와 <피에타>에는 대형 아버지까지 모두 소거된 채 오로지 어머니와 외아들만 존재한다. 너무나 다 싶을 정도로 등장인물들—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보조 인물들까지도—은 하나 같이 외톨이다. 핵가족이 아니라 모자가족(母子家族)이나 일인가족¹⁵⁾이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서술도 없다. 다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고 방식인 듯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려지고 있고, 그들 또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 영화'의 핵심모티프로 작용한다. 영화의 추동력이 바로 아버지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마더>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모자가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일 때

다. 남성상과 여성상이란 두 대극이 존재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부정적 아니무스가 분출될 때, 여성은 남성의 부정적인 면(충동적, 궤변적, 파괴적, 분열적 속성)을 드러내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C. G. 융,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2002.; C. G. 융,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2006.; A. 새뮤얼·B. 쇼터·F. 플라우트, 민혜숙 역, 『융분석비평사전』, 동문선, 2000, 40~43쪽. 참조.

15) 핵가족이란 가족 구성원이 부모와 자식으로 연결된 2대 가족을 지칭하는데, 대가족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용어로는 '어머니 영화'에 나타나는 어머니와 외동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표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필자는 '모자가족(母子家族)' 또는 '모녀가족(母女家族)'이란 용어를 쓰고자 한다. '일인가족(一人家族)'은 성인 한 사람만 사는 경우를 지칭한다. '독신자' 또는 '독거'란 용어가 있으나 가족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쓴 용어다.

문에 아들이 저능아가 된다.¹⁶⁾ 이를 계기로 마더는 아들을 극단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아들에게 집착하게 되고, 결국 살인에 방화까지 하게 된다. 또한 아버지의 부재는 <오로라 공주>나 <세븐 데이즈>에서는 딸을 죽음으로 내모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올가미>에서처럼 아들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을 야기하여 화를 부르기도 한다. 이렇듯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 변화의 동인(動因)이 된다. “보복자는 매파에게 공격 당했을 때는 매파처럼 행동하고 비둘기파를 만났을 때는 비둘기파처럼 행동”¹⁷⁾한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적용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머니의 변화 원인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는 있다.

거기다 ‘외동’이란 조건은 하나뿐인 자식에게 모든 걸 걸게 함으로써 어머니를 극단적으로까지 변화시킨다.¹⁸⁾ ‘외동’콤플렉스가 작동하여 어머니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그런데 “모든 콤플렉스는 (단편적인) 인격을 갖거나 혹은 인격”¹⁹⁾이라는 점에서 ‘외동’콤플렉스는 어머니의 인격이라 할 수 있다. 마더가 ‘마녀’ 또는 ‘머더(murder)’가 되는 이유도 이것이다. <마녀>에서처럼 “무시하면? — 작살낸다.”, “한 대 치면? — 두 대 깎다.”(01:10:55~01:11:04)를 작동시키는 기제가 된다. 그러나 “의식이란, 실행의 결정권을 갖는 생존 기체가 그들의 궁극적 주인인 유전자로부터 해방되는 진화의 정점”이고 “뇌는 유전자의 독재에 반항하는 힘을 갖추

16)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도준이 저능아였기 때문에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부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도준이 다섯 살 때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는 것으로 보서는 그 사건 이후에 저능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7) 리차드 도킨스, 앞의 책, 146쪽.

18) 이에 대해 도킨스(위의 책)는 ‘유전자 보존 욕구(본능)’라 하고 허디(세라 블래퍼 허디, 앞의 책)는 ‘모성본능’이라 했다. 전자가 유전자를 세상에 남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로 본다면, 후자는 모성성을 강조함으로써 어머니의 본능임을 강조했다.

19) C. G. 용(2006), 앞의 책, 152쪽.

고 있다”²⁰⁾는 점에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변화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피에타〉의 어머니, 미선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선과 상구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어 명확하진 않지만, 강도에게 보이는 미선의 태도를 보면 그 관계를 얼마간 유추해볼 수 있다.

미선 : (참답하게) 상구야, 오래 기다렸지? 이제 놈의 영혼은 죽을 거야. 지 눈앞에서 내가 죽으면 가족을 잃은 고통에 빈껍데기만 남고 미쳐서 살아가겠지.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슬프니? 상구야, 미안해. 이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놈도 불쌍해. 강도 불쌍해. (〈피에타〉, 01:31:40~01:32:59)²¹⁾

아무리 아들 상구를 위해 복수를 하지만 강도가 불쌍하다는 미선의 독백은 그녀의 속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부모도 없이, 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강도에게 자신이 너무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문하고 있다. 강도를 악마로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란 존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미선이기에 악마의 화신인 강도를 회개하는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인간으로 바꿔놓는다. 또한 다른 어머니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복수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그리스도의 희생과도 맞물려 있다. 원 텍스트 ‘피에타’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로서의 인간적 비통을 형상화한 그림과 조각이다.²²⁾ 이런 원 텍스트의 핵심모티프는 〈피에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피에타〉는 한국판 예수의 희생과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로서의 인간적 비

20) 리처드 도킨스, 앞의 책, 123쪽.

21) 영화에서 직접 발췌한 내용이라 장면번호를 명시하지 않는다. 또한 시나리오와 다를 수 있음도 미리 밝힌다. 이하 모든 영화 인용에 대해서는 인용문 뒤에 DVD 명칭을 밝힌 것으로 대신하겠다. 자세한 사항은 논문 뒤에 밝힌 ‘참고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22) 피에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창식, 『미켈란젤로 피에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쪽. 참조.

통, 그리고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룬 영화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더 슬하에서 자란 도준과 사랑과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미선의 감화—미선과 강도의 만남의 시간은 짧지만 미선을 만나고 난 후의 강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를 받은 강도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로 ‘어머니의 요인(mother factor)’²³⁾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아들에 대한 집착, 부정적인 아니무스의 발현 : 〈마더〉

〈마더〉는 외동아들에 대한 집착이 보여주는 비극성과 파괴성(〈올가미〉), 자식을 살리기 위해(혹은 복수하기 위해) 파괴를 자행하는 모성(〈오로라 공주〉, 〈세븐 데이즈〉)을 함께 그리고 있다. 또한 근친상간적 모티프는 부정적인 어머니의 극단을 보여준다. 타이틀 크레딧의 ‘마더의 춤’은 이런 영화의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더가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가을 들판을 가로질러 와서는 춤을 추는 장면이 이어 기쁘면서도 괴로운 얼굴을 하며 가을 들판에 서 있는 마더의 모습은 영혼이 거세된 허수아비나 마녀(마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마더〉의 타이틀 크레딧

아무도 없는 별판에 서 있는 마더의 모습은 마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엔딩시퀀스에 가서야 그 의미가 명확해지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23) 스테판 B. 폴터, 김지양 역, 앞의 책.

〈마더〉는 시작시퀀스부터 아들 도준(원빈 분)에 대한 마더(김혜자 분)의 극단적인 보호 내지는 집착을 보여준다. 한약재를 써는 일보다 차밭에서 놀고 있는 저능아 도준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할 뿐 아니라, 도준의 교통사고와 동시에 작두에 손을 베고도 도준의 무사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다친 것을 알 정도다. 마더의 모든 관심은 아들 도준에게 집중돼 있고, 마더의 존재 이유는 오직 도준의 보호에 있음을 암시한다.

마더가 아들을 보호하려는 욕망은 끝이 없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고, 아들 대신 정신박약아를 희생양 삼기도 하고, 아들이 범인임을 아는 고물상 노인을 살해·방화하기까지 한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의 화신이 되어, 뺨뚫어진 모성의 극단을 보여준다.

이런 마더의 속성은 아들인 도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도준이 저능아가 된 것이나 도준이 문아정을 살해한 이유도 마더의 영향(부정적인 교육) 때문이다. 도준이 문아정을 살해한 직접적인 동기는 ‘바보’란 말 한 마디 때문이었다. 영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마더가 ‘바보라고 하면 절대 가만 두지 말고, 어떻게든 보복하라.’고 세뇌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는 도준이지만 사주를 내린 것은 바로 마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마더〉는 “우리 사회의 폐단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근원을 따져보면 가정과 모성이라는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족이기주의의 침범이 바로 엄마”²⁴⁾임을 보여준다.

마더와 도준은 이렇듯 상상계에 머물러 있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법·질서·제도의 영역인 상징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상계에 칩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더는 도준이 다섯 살 때 박카스에 농약을 타서 먹

24)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앞의 책, 556쪽.

이려 했었다. 이는 ‘상징적 거세’로 도준이 상징계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계기가 된다. 마더는 도준이 상징계로 진입하여 사회화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원천봉쇄한 봉쇄자인 셈이다. 이 ‘상징적 거세’와 원천봉쇄는 도준을 상상계에 칩거하는 미숙아(또는 저능아)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비극의 불씨가 된다. 도준이 마더의 치마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며, 마더 또한 평생 동안 바보 도준을 지고 가야 할 숙명을 갖게 하는 한편, 결국은 죄인 조작에 살인·방화까지 저지르게 한다. 이중 삼중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²⁵⁾

그런데 도준이 마더의 영향권에 갇혀있지만은 않는다.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진입을 시도한다. 마더가 박카스에 약을 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을 기억해낸 도준은 마더를 거부하기 시작한다. 나쁜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침을 놔주겠다는 마더의 요구에, “왜? 이번엔 침 놔서 죽이게? 앞으로 절대 오지 마. 와도 안 만날 거야.”(01:13:36~01:13:55)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다. 도준의 이 말은 마더로부터 얼마간 독립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준은 마더를 떠나서 독립할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마더의 ‘정신적인 거세’로 인해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도준의 이 말은 따라서 상징계로의 진입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라 마더에 대한 단순반항이자 거부감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도준의 이 말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더의 침을 거부하고, 마더에게 반항한다는 것은 마더의 속성을 파악했다는 증거다. 비록 마더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마더의 속성을 파악했다는 것은 법과 도덕, 그리고 질서의

25) 라캉의 이론은 다음 저서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김용수, 『자크 라캉』, 살림, 2008.; 손 호머, 김서영 역, 『라캉 읽기 : 정신분석과 미학 총서 2』, 은행나무, 2006.; 권택영 엮음, 민승기·이미선·권택영 역, 『자크 라캉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9.;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발견』, 창비, 2002.

세계인 상징계로의 진입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징계가 완전한 세계인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세계로 법과 질서의 세계이기에, 어머니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전환을 뜻하기에 의미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마더의 도준에 대한 극단적 보호와 집착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마더와 도준의 식사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마더 : (웃으며) 이게 더덕이랑 구기자까장 넣고 포옥 고운 거야. 심지어 정력에도 좋아.

도준 : 오, 정력. 진짜?

마더 : (웃으며) 정력 어마 쓰게 울 아들?

도준 : 여자

마더 : (도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요새 누구 만나?

도준 : 만나지. 만나서 자야지.

마더 : 잤단 봐! 누구야, 누구?(〈마더〉, 00:12:29~00:12:55)

프로이트가 적시하고 있듯,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신 이외의 다른 여자에 대한 욕망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동 그대롭다.²⁶⁾ 이렇게 볼 때 마더의 기괴성은 과보호나 집착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근친상간적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런 속성은 도준이 동네 벽에 소변보는 장면(00:13:52~00:15:18. 도준의 성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도준이 흘린 오줌을 발로 지운다), 아정의 행적을 탐문하다 본드를 흡입한 학생들을 심문하는 장면(01:25:37~01:28:07. 도준이 엄마와 떡도 치냐고 놀리자 진태가 얼굴을 걷어찬다.)에도 보인다.

26) 프로이트, 김재혁·권세훈 역, 『꼬마 한스와 도라 : 프로이트 전집 10』, 열린책들, 1997, 24쪽.

필름 전체에서 모자간 근친상간적 암시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문제는 이런 근친상간적 삶의 구조 속에서는 도준이 사회적 자아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중략…〉 도준의 미성숙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엄마의 집착, 혹은 타자적 욕망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²⁷⁾

이 뿐만이 아니다. 마더는 성도착증자²⁸⁾처럼 보이기도 한다. 도준의 친구인 진태와의 대화 장면(01:01:14~01:06:21. 진태는 혜자가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했던 것을 반말로 책망하며 남편처럼 행동한다. 또한 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한다.)은 진태와도 성관계를 맺었음을 암시한다. 이렇듯 마더는 리비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 다른 도준’이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더에게 간혀 있는 도준이 정상적으로 상징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마더는 여성이면서도 남성적 속성도 지니고 있다. 물론 공권력(경찰)이 마더에게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직접 증거를 찾아!”라고 충동질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 여자라면 행동화하지 못할 일을 행동화한다. 직접 탐정이 되어 아들의 무죄 증거를 찾아나서는 것이나 다양한 추리를 통해 문아정의 휴대폰을 찾아내는 행위는 긍정적 아니무스의 발

27) 신철하, 『서사적 욕망과 형식—「마더」와 정신분석』, 『어문논집』 63, 민족어문학회, 2011, 404쪽.

28) 여기서 성도착증은 일반적인 의미의 성도착증, 즉 성에 대해 지나치게 탐닉하는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의미의 성도착증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 핑크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엄밀하게 도착증자라고 할 만한 환자들을 발견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했다. “도착은 법을 지탱하여 주이상스(라캉이 〈주이상스에 대한 의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한계를 부과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도착증은 법이 아직 설정되지 않아 주체가 그 법이 존재하도록 노력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도착증은 타자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착증은 거의 절대적으로 남성에 국한된 진단”이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284·285·299쪽. 참조.

현이다. 행동성, 논리력, 추리력 등은 남성의 긍정적인 속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 인멸을 위해 고물상 노인을 살해하고 방화하는 행위나 범죄 현장에서 벗어나자마자 춤을 추는 행위는 부정적 아니무스의 발현이다. 충동적, 파괴적, 분열적 속성은 부정적 아니무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²⁹⁾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욕망에서의 폭력의 우선권보다 더 진부한 것도 없다. …〈중략〉… 위기의 절정에서는 폭력이 모든 욕망의 수단이자 동시에 주체이며 대상³⁰⁾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마더는 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성적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 것이다. 이런 속성은 〈마더〉뿐만 아니라 〈오로라 공주〉, 〈세븐 데이즈〉에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부정적 아니무스가 표출되는 이유는 여성의 남성화 경향과 아버지의 부재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들이 아버지 역할까지 수행하다 보니 남성적인 면모, 남성화 경향이 표출될 수 있다. 여성의 남성성—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은 여성에게 잠재되어 좀처럼 표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성을 표출할 상황이 자주 생기다 보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성성이 강화될 수 있다. 아니무스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에게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양성평등 사회요, 여성의 사회 활동이 두드러진 사회요, 여성과 남성의 구별을 엄격히 하지 않는 사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남성성을 자극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남성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여성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라고 한다면, 외동자녀가 위협에 처해있거나 살해됐을 때가 그런 경우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어

29) 주 14) 참조.

30) 르네 지라르, 김진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217쪽.

머니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는 자신 속의 남성을 불러내는 것이다. 그 어머니 속 남성성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이 바로 부정적 아니무스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어머니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어머니를 그렇게 만드는 상황(사회)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더>는 프로이트, 융, 라캉,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포괄하는 ‘어머니의 심리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논문의 본령이 아니므로 뒤로 미루어둔다.

<마더>는 이렇게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가정의 버팀목인 엄마라는 존재에 의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취약함을 건드리고 있다.”³¹⁾ 더군다나 마더의 주변에는 마더의 침술로 자식(특히 아들)을 낳으려고 기를 쓰는 미래의 마더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더 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묻지마 관광’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발광에 가까운 춤을 추는 아줌마들의 무리는 ‘묻지마 삶’을 지향하는 또 다른 마더들임을 환기시킨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반성의 자리’는 슬프고 아프지만 새로운 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융성한 자리가 된다.

4. 양면성을 가진 ‘위대한 어머니’ : <피에타>

외동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피에타상은 성모 마리아의 인간적 비통을 종교적 관념으로 추상화·단순화·미화시켰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성모가 아닌 인간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그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려 하고, 극복했을까? 영화 <피에타>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31)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앞의 책, 558쪽.

‘피에타’는 원 텍스트부터가 어머니의 인간적인 슬픔과 비통을 담고 있다. 예수가 신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니 이상, 예수의 죽음은 마리아에게 고통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피에타’라 명명하고 그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려 한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접근이어서 거부감을 가질 만도 한데 기독교를 표상하는 핵심모티프로 승화시켜 놓는다. 죽음이란 기표보다 부활이란 기의를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구원과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영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피에타’는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인간적인 어머니’가 아닌,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위대한 어머니’, ‘자애로운 성모’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피에타〉 포스터와 상징성

발단부에 크로즈업 되는 가시만 남은 고기의 잔해는 영혼을 잃어버린 채 가시로만 존재하는 강도를 상징하고, 포스터는 마리아와 예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비록 죽은 채 눈을 감고 있지만 미선과 강도는 진정한 모자(母子)로 재탄생할 것임을 암시한다.

영화 〈피에타〉도 원 텍스트가 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재현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다. 아니, 〈피에타〉는 ‘피에타’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요, 한국적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피에타’의 오마주(hommage)로서 현재,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형한 그림(또는 조각)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피에타〉는 ‘어머니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면(다면)적인 어머니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유다른 위상을 갖는다.

〈피에타〉도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강도에 대한 복수심에서 출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어머니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어머니상을 기반으로 한다.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살인범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인 화형(火刑)으로 처단하는 〈세븐 데이즈〉나 다를 바가 없다. 어쩌면 〈세븐 데이즈〉의 화형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강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잔인할 수 있다. 강도(이정진 분)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한편 상실의 고통을 주어 영혼마저 파괴하겠다는 미선(조민수 분)의 계획은 더 잔인하고 악랄한 복수일 수 있다. 육체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파괴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선은 또 다른 면을 가진 ‘위대한 어머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악마인 강도와 그 영혼을 가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구의 자살 이유를 알게 되는 장면(01:25:55~01:28:48. 미선은 울고 있는 강도에게 “넌 돈으로 인간을 시험하는 악마야. 너도 이제 그 사람들의 심정이 돼 봐! 가족이 니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똑똑히 봐!”라며 복수를 다짐한다.)과는 달리, 자살을 결행하는 장면(01:31:40~01:33:00. 자살 직전 미선은 “상구야, 미안해. 이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놈도 불쌍해. 강도 불쌍해.”라고 속마음을 드러낸다.)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낸다.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도, 강도와는 짧은 생활을 통해 강도를 가엾은 존재로 인식하고 그를 가여워한다. 강도는 악한도 악마도 아닌 가여운 영혼임을 깨달은 것이다. 만약 강도에게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면 그런 인간이 되지 않았을 것³²⁾이란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낸다. ‘배려와 동정, 유용한 본능 혹은 충동, 자비’를 가진 어머니로서 강도를 품음을 뜻한다. “어린아이에게 오랫동안 어머니의 보호를 박탈하면 아이의 성격에 심각한 악대한 영향을 끼칠

32) 애착이론에 대해서는 제러미 홉즈, 이경숙 역, 『존 볼비와 애착이론』, 학지사, 2005.; 세라 블래퍼 허디, 앞의 책. 참조.

지도 모르며, 아이의 미래의 삶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는 태어나기 전에 걸린 풍진의 나쁜 잔존효과 또는 유아기 때 비타민D 결핍으로 생기는 영향과 형태상 아주 비슷한 경우³³⁾라고 인식한 것이다. 유아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핵으로 작용하는데, 강도에게는 그런 어머니가 없었다. 낳자마자 버려졌다는 트라우마는 강도의 삶과 의식 전체를 관통하는 ‘나쁜 피’가 되었다고 인식하기에 이른다. 이런 미션이야말로 원수마저 가엾어 하는, 사랑 그 자체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태 오복음 5 : 44)³⁴⁾라고 예수가 강조한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한편, 그럴 수밖에 없는 그를 가엽게 여겨 사랑하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원수마저 사랑하는 미션은 성모³⁵⁾라 하겠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극에 해당하는 긍정적이고도 밝은 면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진 어머니다.

33) 제러미 홉즈, 위의 책, 71쪽.

34) 대한성서공회, 『공동번역 성서(카톨릭용)』, 대한성서공회, 1977, 신약편 5쪽.

35) ‘성모’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낳은 성모 마리아를 뜻한다. 그러나 ‘성모’란 용어는 용이 말하는 ‘위대한 어머니(Great Mother)’ 또는 ‘태모(太母)’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기보다는 집단무의식에 의해 형성된 ‘위대한 어머니상’을 투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성모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극성(極性)을 가지고 있다. 그 양극 중 긍정적인 이미지는 ‘어머니다운 배려와 동정, 여성의 마법적 권위, 이성을 초월하는 정신적인 고양과 지혜, 유용한 본능 혹은 충동, 자비로운 모든 것, 소중히 하고 지원하는 모든 것, 성장과 비옥을 육성하는 모든 것’과 같은 특질들을 말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것, 심연, 죽은 자의 세계, 삼키고 유혹하며 중독 시키는 어떤 것, 운명처럼 피할 수 없으면서 두려운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션은 이 두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 G. 융(2006), 앞의 책; A. 새뮤얼·B. 쇼터·F. 플라우트, 민혜숙 역, 앞의 책, 105~107쪽. 참조.

이런 양면성은 강도에게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녀가 강도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남다르다. 외화면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강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낱자마자 강도를 버린 어머니로 접근한다. 가짜 어머니이면서 진짜 어머니처럼 가장³⁶⁾하는 것은, 비록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트라우마로 악마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강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느 인간처럼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아무리 악마라 해도 어머니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하에 강도에게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미선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낸다. 그러기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남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강도는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 행동을 통해 복수하려 한다. 이런 미선의 믿음은 〈피에타〉 전체를 움직이는 추동력이 된다. 잘못하다간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악마인 강도에게 감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미선의 인간에 대한 믿음은 긍정적인 어머니상으로 나타난다. 다른 ‘어머니 영화’에서처럼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복수를 하기보다 죄인 스스로가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참고 기다리는 모성’의 발현이라 하겠다. 이런 점은 ‘영혼 구원’이란 주제를 부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36) 이런 사실은 영화 후반부에 드러난다. 감독은 스릴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반전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어머니상과 부정적인 어머니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죽은 두 모자(母子) 옆에 누운 강도의 모습

강도는 미선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죽게 만든 상구의 어머니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미선을 상구와 자신 사이에 눕힘은 물론 미선 쪽으로 돌아누워 있다. 또한 미선이 죽은 상구 생일날에 맞춰 짜서 입힌 상구의 스웨터를 강도가 입고 있다. 세 모자(母子)가 평화롭게 누워있는 듯 보이지만, 강도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육체를 파괴한다. 그럼으로써 이 평화로운 자리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미선의 유언에 따라 나무를 파다 그 속에 상구가 묻혀있음을 발견한 강도는 진실을 알게 된다.(01:35:40~01:36:10) 미선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죽게 만든 상구의 어머니란 사실을, 자신의 생일날이라고 알려준 날도 사실은 상구의 생일날이었음을, 미선이 쉬지 않고 짠 스웨터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상구를 위한 선물이었음을, 〈섬아기〉 또한 상구를 위해 불러주었던 노래였고, 상구를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였음을. 그런데도 강도는 미선을 자신의 어머니(영혼의 어머니)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 곁에 머무르려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런 점에서 미선을 일종의 희생양으로 볼 수 있고, 미선의 자살은 상구와 강도를 위한 제의일 수 있다. 육체적인 불구였던 상구를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을 씻으려는 것(정화)이고, 정신적인 불구인 강도에게는 참된 영혼을 갖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제의 형식과 제의가 허용하는 행위 쪽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킴으로써, 문화 질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욕망의 집중을 막는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를 〈이중명

령)의 고약한 피해로부터 보호한다.³⁷⁾

강도가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애란 사실미션에게 자신의 허벅지살을 도려내 먹이는 장면(00:31:40~00:33:05), 미선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면서도 생일선물을 받고서 기뻐하는 장면(01:02:36~01:03:32), 미선의 함께 자려다 쫓겨나는 장면(01:11:18~01:12:13) 등에 비추어볼 때 미선의 자살은 자신을 희생양 삼아 경건한 제의를 치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하라’는 명령과 ‘따라하지 말라’는 이중 명령 속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넘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희생양은 자신 속에 가장 해로운 양상과 가장 이로운 양상을 함께 갖고 있는 것”³⁸⁾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상호적이며 파괴적인 폭력으로부터 강도를 구원하고, 강도가 속해 있는 사회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피에타>의 예술성이 드러난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진짜 예술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폭력을 예측하게 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게 한다는 점에서, 즉 신중하게 처신하게 하여 휴브리스를 피하게 한다는 점에서, 약하나마 <입문의식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³⁹⁾

이렇듯 배려가 넘치는 ‘완전한 어머니’⁴⁰⁾인 미선은 결국 강도를 변화

37) 지라르, 앞의 책, 223쪽.

38) 위의 책, 132쪽.

39) 위의 책, 440쪽.

40) ‘완전한 어머니’란 용어는 폴터(김지양 역, 앞의 책.)가 다섯 가지 유형의 어머니를 구분하면서 쓴 말이다. 완전한 어머니는 배려심이 넘치는 어머니로서 “자기 자녀가 성공적으로 독립하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다. ‘완전한’의 의미는 “정서적으로 자식들과 교감을 유지하면서도 자식들이 자기만의 자주적인 의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완벽한’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키고 자기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미선의 실종에 강도는 자기에겐 원한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01:14:10~01:28:49)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다. 자신은 그들의 삶을 파괴한 악마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의지로 바뀐다. 폐건물 3층에서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로 소리치는 미선을 본 강도는 무릎을 꿇고 (가상의) 납치범에게 빌기 시작한다.

강도 : (무릎까지 꿇으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엄마를 놓아주세요. 제발, 제발! 내가 죽을게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피에타〉, 01:33:44~01:34:57)

미선은 그런 강도를 보면서 측은해 한다. 악마인 강도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땅바닥에 엎드려 손을 삭삭 비는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로서 갈등한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투신하여 복수를 결행한다. 자신이 떨어지는 몸무게의 반동을 이용해 강도가 솟아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스핑크스는 외면적으로 ‘무서운’ 혹은 ‘잡아먹는’ 어머니를 의인화한 것으로 이러한 이중적 존재야말로 어머니상에 상응하는 것”⁴¹⁾이라는 점에서, 또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머니 원형의 적대성은 결국 그녀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최고의 능력을 갖도록 자극하려는 바로 어머니인 자연의 술수”⁴²⁾라는 점에서 〈피에타〉는 ‘황홀한 비극’이라 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강도 스스로 구원하기를 바라는 미선과 그 바람을 자신의 육신 파괴를 통해 실현하는 강도의 죽음은 황홀할 수밖에 없기

41) C. G. 옴(2006), 앞의 책, 26~27쪽.

42) 위의 책, 225쪽

때문이다.

이렇듯 미션의 등장으로 강도는 그 동안 가질 수 없었던 가치관을 갖게 된다. 그와 동시에 주위와 주변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엔딩시퀀스에서 강도는 자신이 파괴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온전히 내면화하고, 지난날을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트럭 바닥에 묶고 처형의 길을 간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고통보다,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자신을 벌한다. 교회는 강도가 사는 집 바로 옆에, 커튼만 걷으면 보이는 곳에 있었지만 구원의 길은 그렇게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트럭 밑에 자신의 육신을 묶고 쓸쓸한 한 줄기 핏자국을 아스팔트 위에 남기며 사라지는 강도의 모습은 그래서 강렬하다. 또한 길게 이어진 강도의 핏자국 위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은 강도의 영혼의 눈뜸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다. 친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악마로 추락한 강도가, 자애로운 대행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기 구원의 길을 간다는 진한 메시지를 여운으로 남긴다. 그럼으로써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렇게 볼 때, 〈피에타〉는 결국 ‘어머니 신화’를 부활시킨, 과거로의 회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에타〉의 어머니 신화 부활은 일반론적인 관점과는 다르다. 자신을 희생양 삼아 인간(악마)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이 아닌,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기의 원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성모 마리아도 여성 영웅도 아닌 평범하기 그지없는 미션이란 한 인물을 통해 사회악을 제거(정화)하는 한편, 악마의 분신인 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스토리는 새로운 모성상(母性像) 제시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이 아닌 대사회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의미를 그려내고 있어, 기존의 모성상을 해체·전복하고 있다. 여기에 〈피에타〉의 새로움이 있다 할 것이다.

5. 나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릴러 영화가 생산되며 질과 양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영화들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힘 가진 자들의 범죄를 부각시키고 해결자로서 가족이 나서게 하는 점에서는 현실을 반영한다.⁴³⁾ ‘어머니 영화’ 대부분이 스릴러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반영한 것이면서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진 관객들의 기호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지연과 반전을 통한 두뇌게임은 관객을 몰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유인책도 된다는 점이 스릴러 영화와 ‘어머니 영화’가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영화’는 나름대로 장르문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변화상을 가감 없이 그리되,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어머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생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스릴러의 한 소재거리로 전락할 때 어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인식도 함께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피에타〉는 ‘어머니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화는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현실에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43)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앞의 책, 66쪽.

있을 때 영화는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영화가 현실인 것은 아니다. 현실에 바탕을 두긴 하지만 자기만의 생존원리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화가 현실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머니 영화’가 어머니를 단순한 소재로 활용하기보다 어머니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성찰을 기반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될 때 ‘어머니 영화’는 더욱 깊고, 융숭하고,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DVD <올가미>(김성홍 감독), 태원, 2001.
DVD <오로라 공주>(방은진 감독), 시네마서비스, 2006.
DVD <세븐 데이즈>(원신연 감독), KD MEDIA, 2010.
DVD <마더>(봉준호 감독), CJ E&N, 2012.
DVD <피에타>(김기덕 감독), KD MEDIA, 2013.

2. 논문과 단행본

- 권택영 엮음, 민승기·이미션·권택영 역, 『자크 라캉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9.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발견』, 창비, 2002.
김용수, 『자크 라캉』, 살림, 2008.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 장르의 모든 것 3 : 추리물』, 이론과 실천, 2011.
비판사회학회 엮음, 『산업사회의 이해 : 노동세계의 탐구』, 한울아카데미, 2012.
신창식, 『미켈란젤로 피에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신철하, 『서사적 욕망과 형식—『마더』와 정신분석』, 『어문논집』 63, 민족어문학회, 2011, 391~413쪽.
전문희, 『<마더> : 모성의 괴기함 또는 신성함』, 『한국인문학연구』 31, 한중인문학회, 2010, 268~292쪽.
대한성서공회, 『공동번역 성서(카톨릭용)』, 대한성서공회, 1977.
A. 새뮤얼·B. 쇼터·F. 플라우트, 민혜숙 역, 『융분석비평사전』, 동문선, 2000.
C. G. 융,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2 : 원형과 무의식』, 숲, 2002.
_____,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8 : 영웅과 어머니 원형』, 숲, 2006.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이상임 역,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10.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세라 블래퍼 허디, 황희선 역, 『어머니의 탄생 : 모성, 여성, 그리고 가족의 기원과 진화』, 사이언스북스, 2010.
손 호머, 김서영 역,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6.
스티븐 B. 폴터, 송중용 역,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 씨앗을 뿌리는 사

람, 2007.

_____, 김지양 역, 『어머니는 누구인가』, 글로세움, 2010.

제러미 홉즈, 이경숙 역, 『존 볼비와 애착이론』, 학지사, 2005.

제베데이 바르부, 임철규 역, 『역사심리학』, 창작과비평사, 1983.

프로이트, 김재혁·권세훈 역, 『꼬마 한스와 도라 : 프로이트 전집 10』, 열린책들,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Maternal Image of the Korean Movies of 2000s

—Focusing on “마더(Mother)” and “피에타(Pieta)”

Yi, Sung-Jun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five pieces of Korean movies including “올가미(The Hole)”, “오로라 공주(Aurora Princess)”, “세븐 데이즈(Seven Days)”, “마더(Mother)”, and “피에타(Pieta)” dubbed as ‘mother discourse’ of 2000s to see how and why the maternal image has changed. Its focus is given to “마더(Mother)” and “피에타(Pieta)”.

Father does not exist in the ‘mother movies’ of 2000s. This is not only the reality of modern Korean society, but also an aspect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in general.

The absence of fathers has imposed responsibilities on mothers to protect their children. Mothers have changed as they undertook the roles of fathers. The quoted five movies reflect such changed image of maternity. In addition, in the wake of the ‘only-child’ complex, the mothers even make themselves a revelation of negative animus.

“마더(Mother)” is a good example. This movie shows that the blind love of the mother results in tragic catastrophe. In the movie having factors of incest, the mother becomes a witch or a murderer. In this respect, “Mother” calls for our retrospection on mothers while it shows the changed image of maternity in lineage of the ‘mother movies’ of 2000s.

“피에타(Pieta)” reveals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a mother. The movie belongs to the category of ‘mother movies’ in a sense that the mother shows a negative image of maternity by destroying the devil in revenge of her son. On the contrary, the movie has a different status as it reveals an affectionate and positive image of the mother, presenting a new paradigm for pursuing the matter of human salvation through the ‘mother discourse.’

(Key Words : “마더(mother)”, “피에타(pieta)”, ‘Mother Movies’, maternity, changed

428 대중서사연구 제30호

maternity image, absence of fathers, multi-dimensional, animus,
religious ceremony, scapegoat, human salvation)

투고일 : 2013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0일 게재확정